

동우회 순회연극단과 김우진*

동경조선인유학생동우회 순회연극단 활동과 김우진

The Dongwoohoe's Tour Theatre Company and Kim Woo-jin : The Performance Activities of the Korean Self-supporting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and Kim Woo-jin

이상우**

국문요약 본 논문은 1921년 7~8월에 이루어진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인적 구성과 활동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공연활동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그것이 지닌 사상적 배경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공연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인물 김우진과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극예술협회와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관계, 동경유학생학우회와 동경유학생동우회의 관계, 더 나아가 다이쇼데모크라시시대의 문화주의적 개조론, 교양주의 사상과 김우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반 동경유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순회연극단이 지닌 민족운동적 성격의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핵심어 동우회 순회연극단, 동경유학생동우회, 극예술협회, 김우진, 동경유학생학우회, 다이쇼 데모크라시

* 이 글은 日本演劇學會 학술지 『演劇學論集』 紀要65(東京: 日本演劇學會, 2017.11)에 발표된 논문 「1920年代'植民地朝鮮出身の渡日留学生たちによる巡迴演劇-在東京朝鮮人留學生同友會巡迴演劇團の活動を中心に」를 약간의 수정을 거쳐 한국어로 번역, 재수록한 것임.

**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국어국문학과 교수.

차례

1. 시작하는 말
2. 동우회 연극단의 인적구성과 특성
3.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활동과 작품
4. 동우회 연극단의 사상적 배경과 '교양'의 의미-결론을 대신하여

1. 시작하는 말

본 논문은 1921년 7~8월에 이루어진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인적 구성과 활동내용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공연활동이 어떠한 사회, 문화적 배경에서 탄생하였으며, 그것이 지닌 사상적 배경은 어떤 의미를 갖는지에 대해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정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공연활동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핵심인물 김우진과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관계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따라 본고는 극예술협회와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관계, 동경유학생학우회와 동경유학생동우회의 관계, 더 나아가 다이쇼데모크라시시대의 문화주의적 개조론, 교양주의 사상과 김우진의 관계에 대해 고찰한다. 이를 통해 1920년대 초반 동경유학생들에 의해 이루어진 순회연극단이 지닌 민족운동적 성격의 단면을 파악하고자 한다.

01 『東亞日報』, 1921.7.7.

02 흥남파가 연극단 단원들과 함께 일본에서 부산으로 임항하였는지는 정확하게 알기 어렵다. 동경음악학교를 중퇴하고 매일신보 기자로 근무하였으나 소설 〈최후의 악수〉를 연재(1921.4.29~6.7)할 때는 일본 동경에 체류했던 것으로 보인다. 연재 마지막 회에 '5월 28일 동경에서 난파생'이라고 적은 것으로 보아 연극 공연 준비를 할 때 동경에서 순회연극단 단원들과 함께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매일신보』, 1921.6.7.)

2. 동우회 연극단의 인적 구성과 특성

1921년 7월 6일 아침 재동경조선인유학생동우회 순회연극단⁰¹ '동우회연극단'이 밤사이 관부關釜연락선을 타고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 상륙했다.⁰¹ 단장 임세희와세다대를 비롯해 무대감독 김우진와세다대, 단원 홍해성본명洪在源, 니혼대, 조명희도요대, 홍난파본명洪永厚, 東京音樂學校 중퇴⁰², 마해송니혼대, 김기원, 공원호, 허일, 오의상 등 모두 남녀30여명 규모의 연극단이였다. 이중에는 여성 멤버인 소프라노 윤십덕동경음악학교도 포함되어 있었다.⁰³ 동우회 연극단은 동경유학생동우회가 하기방학을 이용하여 '문화선전과 계몽', 그리고 일본 유학 중인 고학생을 위한 '기숙사 건립기금'을 모으려는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동경유학생동우회는 동경에 거주하는 조선 고학생과 노동자들의 단체라고 알려져 있다. 동우회 연극단의 조직도는 다음과 같다.

단장 : 임세희林世熙

정리위원整理委員 : 박춘금朴春琴, 안성호安聖鎬, 손영극孫永克, 한인봉韓仁鳳

사교위원社交委員 : 박봉서朴鵬緒, 홍승로洪承魯, 황석우黃錫馬, 최석기崔錫麒

무대감독 : 김우진金祐鎭

연사演士 : 홍재원洪在源=洪海星, 조명희趙明熙, 홍영후洪永厚=洪蘭坡, 김기원金起元, 공

원호孔元昊, 허일許一, 마해송馬海松, 오의상吳義相

음악부⁰⁴

03 『東亞日報』, 1921.6.28.

04 『東亞日報』, 1921.6.28.

동우회 연극단의 조직은 단장 임세회를 중심으로 정리위원과 사교위원, 무대감독과 연사, 음악부 등으로 구성되었다. 정리위원과 사교위원은 순회공연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행사진행, 대외교섭 및 재정지원 조직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연사와 음악부는 순회공연의 실제적인 실행, 실천 조직의 성격을 가졌다. 정리위원의 면면을 보면 특이하게도 좌익과 우익, 친일인사와 민족운동가가 섞여있는 다양한 인적 구성을 갖고 있었다.

예를 들어 보자. 먼저 경남 밀양 출신의 정리위원 박춘금朴春琴, 1891년생은 일본으로 건너가 하급노동자를 거쳐 폭력배로 성장하였고, 나고야에서 인삼판매업으로 성공한 뒤 동경에서 조선노동자들을 규합하여 노동자 상호부조조직 '상구회相救會'를 만들었는데, 이듬해 '상애회相愛會'로 개칭하여 자신이 부회장을 맡았다. 조선총독부 국장 출신인 마루야마 쓰루키치丸山鶴吉의 중개로 조선 재계의 지원을 받은 상애회는 회원 10만명 규모의 전국조직으로 발전하였다.⁰⁵ 박춘금은 1923년 관동대진재關東大震災가 일어났을 때에는 조선인 학살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걸고 상애회 회원들을 규합하여 진재 복구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스스로 '일선융화日鮮融和'의 모범을 보이려고 노력하였다.⁰⁶ 정치에 뜻을 두고 일본 우익의 거두 토야마 미즈루頭山滿와 교류하면서 일선융화 및 배외주의 사상을 주입받았다. 그는 1932년과 1937년, 두 차례의 동경제4구 중의원衆議院 의원 총선에서 당선되어 조선인 유일의 일본 중의원으로서 선출되었다.⁰⁷

05 丸山鶴吉, 『七十年とところどころ』, 七十年とところどころ刊行会, 1955, 91면.(원지연, 「近代日本の植民地統合과 同化政策의 破綻－朴春琴의 事例를 中心으로」, 『大韓日語日文學會 秋季國際學術發表會 論文集』, 2015.11, 238면에서 再引用)

06 小熊英二, 「朝鮮生まれの日本人－唯一の朝鮮人衆議院議員・朴春琴」, 『〈日本人〉の境界』, 東京: 新曜社, 1998, 374면.

07 日本 植民地下에서 日本 國會議員이었던 朝鮮人은 貴族院의 尹德榮, 衆議院 朴春琴 뿐이었다. 尹德榮은 1939년 12월20일 勅選 貴族院 議員이 되었다.(林鍾國, 「日帝末 親日群像의 實態」, 『解放前後史의 認識』)

충남 공주 출신 안성호(安聖鎬, 1890년생)는 아오야마학원(青山學院) 신학과에 재학 중인 1919년에 3·1운동이 일어나자 일시 귀국하여 공주에서 만세운동을 주동하다가 체포되어 5개월간 옥고를 치른 뒤 다시 아오야마학원에 복교하였다.⁰⁸

함경북도 길주 출신 손영극(孫泳克)은 아나키스트계 사회주의자로서 1923년에 아나키스트 단체 '흑도회(黑濤會)' 출신인 김약수(金若水), 송봉우(宋奉瑀), 이여성(李如星) 등과 함께 사회주의단체 북성회(北星會)를 결성하였고, 1926년에는 조선공산당에 입당하였다.⁰⁹ 북성회는 주로 동경 유학생들로 구성되었으며, 다카즈 마사미치(高津正道), 후세 다쓰지(布施辰治) 등 일본 사회주의자들과 함께 조선에서 순회강연 활동에 전념하였다.

한인봉(韓仁鳳)은 1923년에 조선토산품 애용운동단체인 조선물산장려회 이사과 민립대학설립운동단체인 조선민립대학 기성준비회 상무위원을 맡은 우파계 민족주의자라고 할 수 있다. 조선물산장려회, 민립대학설립운동은 1920년대 초반에 조만식, 이상재, 이승훈, 윤치호, 김성수 등 우파 민족주의 지도자들이 이끈 일종의 부르주아민족운동이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동우회 연극단의 정리위원은 극우성향의 친일인사, 우파 민족주의자, 아나키스트계 사회주의자 등 다양한 사상적 배경과 계파적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시기 동우회 연극단에 가담한 조선인 유학생 및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념적 성향이 복잡하고 다양했음을 반증한다. 실제로 1920년대 초반에 조선에서 순회강연 및 순회연극을 통해 민족계몽운동을 수행한 유학생들은 정치적 성향이 우파 민족주의

(1), 한길사, 2006. 312면)

08 『韓國監理敎人物辭典DB』, 基督教大韓監理會(The Korean Methodist Church) 인터넷 홈페이지 參照.

09 姜萬吉, 成大慶 編, 『韓國社會主義運動人名辭典』, 創作과批評社, 1996, 243면.

와 사회주의로 양분되어 있었지만 같은 조직에서 함께 활동해왔다. 다이쇼 데모크라시 시기에 개인주의, 문화주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등 다양한 사상이 일본에 유입되어 학생, 지식인 및 노동자 계층에 폭넓게 확산되었기 때문이었다. 이 시기에 가장 대표적인 유학생 단체이자 가장 많은 유학생들이 소속되어 있었던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약칭 학우회, 1912~1931)에도 조직 안에 자유주의 진영과 사회주의 진영이 함께 섞여 있었다. 이들은 민족주의의 기치 아래 의기투합했지만 1925년 이후 학우회 내에 주도권이 자유주의 그룹에서 사회주의 그룹으로 이동하면서 대립, 분열하기 시작했고 마침내 조직 해체를 결의하게 되었다.¹⁰

박춘금이 연극단의 정리위원이 된 것은 매우 이례적인데, 그가 재동경 조선노동자단체 상애회의 부회장이었고, 조선인 고학생들의 대표적인 아르바이트 업종의 하나였던 인삼판매업과 관련되었다는 점, 순회공연의 주요목적이 유학생 기숙사 건립이었는데 조선인 노동자 공동숙소 설립을 주도했다는 점 등도 그가 동우회 연극단에 관여하게 된 중요한 이유가 될 것이다.

사교위원의 인적 구성도 정리위원과 비슷하다. 박봉서朴鵬緒는 조선물산장려회 이사¹¹이며 조선기독교창문사朝鮮基督教彰文社 창립위원¹¹ 및 전무¹²를 역임한 인물로 기독교계 민족주의자로 분류될 수 있다. 충북 충주 출신인 홍승로洪承魯는 주오대학中央大學 법학과에서 유학 중이던 1920년 1월에 동경조선고학생동우회 창립회원으로 참여하였다. 이후 상해上海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가담하여 독립군의 자금 조달 업무를 수행하였다.¹²

10 정미랑, 『1920年代 在日朝鮮留學生의 文化運動』, 知識産業社, 2012, 87~90면.

11 『東亞日報』, 1922.12.14.

12 『東亞日報』, 1965.1.26.

서울 출신 황석우(黃錫禹, 1895년생)는 와세다대 정치경제과에 유학하면서 일본 상징주의 시인 미키 로후우(木露風)의 영향을 받고 퇴폐주의 경향의 시를 쓰기 시작했고, 문학잡지 『폐허廢墟』¹³, 『장미촌薔薇村』¹⁴ 동인으로 활동하였다. 그는 1920~1921년 무렵에 조봉암(曹奉巖), 김약수(金若水), 원종린(元鍾麟) 등 유학생들과 함께 일본 사상단체에 출입하면서 무정부주의단체 흑양회(黑洋會)를 조직하기도 했다.¹³ 최석기(崔錫麒)는 민립대학설립운동에 발기인으로 참여한 지역 유지였다.

사교위원의 면면을 볼 때 아나키스트계 사회주의자인 홍승로, 황석우는 동우회의 내부인물로서 선발된 것으로 보이며, 박봉서와 최석기는 지역 유지 및 재력가 출신들로서 원만한 순회공연 활동의 진행을 위해 대외교섭 및 기부금 모금에 도움을 얻기 위해 위촉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내부인물인 홍승로와 황석우다. 1920년 1월 25일 동경의 조선 유학생 및 노동자의 지도와 지원을 목적으로 홍승로, 김약수, 박열(朴烈), 송봉우, 박일병(朴一秉), 원종린 등 약300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동경조선고학생동우회(朝鮮高學生同盟)를 만들었다.¹⁴ 홍승로는 동우회의 창립멤버이자 핵심멤버의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황석우 역시 아나키스트계 사회주의자라는 점에서 동우회 그룹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 동우회 그룹은 1912년에 조만식(曹晩植), 송진우(宋鎭禹), 안재홍(安在鴻), 장덕수(張德秀) 등 자유주의민족주의 그룹 유학생들이 주도하여 설립한 유학생단체인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朝鮮留學生會)와 별도로 고학생과 노동자 등 생활조건이 곤란한 동경의 조선인을 위한 지원단체를 만

13 高峻石 監修, 文國柱 編著, 『朝鮮社會運動史事典』, 東京: 社會評論社, 1981, 416면.

14 上掲書, 423면.

15 黃錫禹, 「東京留學生과 그 活躍」, 『三千里』, 1933.2, 25면.

들게 된 것이다.

학우회가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계열이 함께 공존하는 순수 유학생단체라고 한다면, 동우회는 아나키스트 계열의 사회주의자들이 주도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동우회 회원 가운데 일부는 1921년 11월 사상단체 신인연맹 新人聯盟을 결성하고 아나키스트운동 기관지 『흑도黑濤』를 발간하였다. 북성회北星會, 1923는 이 단체의 후신이다. 동우회 창립회원인 홍승로¹⁶는 순회연극단이 동우회의 취지와 목적에 맞게 활동하도록 견인, 감독하는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크다.

단장을 맡은 충남 조치원 출신 임세희와세대대정경학부는 학우회의 핵심간부로 1920년 7월 9일부터 20일까지 실행한 제1회 학우회 고국순회강연단의 일원으로 참가한 경험이 있다.¹⁷ 그가 이듬해에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단장을 맡게 된 것은 이러한 고국순회강연 경험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동우회 연극단에서는 단장 임세희를 비롯해 정리위원, 사교위원으로 연극단에 참여한 안성호, 손영극, 홍승로, 황석우 등이 실질적인 지도부 역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들은 문화운동을 통한 민족계몽, 동경의 고학생 및 노동자 숙소건립을 위한 모금이라는 고국순회공연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도적 임무를 수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순회연극단의 배후세력인 學友會와 同友會의 핵심 인물인 임세희와 홍승로, 황석우 등이 그러한 역할을 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동우회 연극단의 ‘연사演士’는 실제로 연극단 단원을 의미한다. 이들이 강연활동을 하지 않고 공연활동에만 전념했음에도 불구하고 ‘연사演士’라는 용

16 홍승로 외 5명의 조선 유학생들이 1920년 9월2일 동경에 도착한 미국위원단에 접근하여 조선 독립의 의지를 알리려하다가 현장에서 체포된 사건이 있었는데, 홍승로는 그 주동자 중의 하나였다. (『東亞日報』, 1920.9.4)

17 「學友會 主催, 東亞日報 後援, 夏期巡迴講演大會」, 『東亞日報』, 1920.7.9.

어를 사용한 것은 아마 전년부터 시작된 學友會의 하기夏期 고국순회강연단에서 연사라는 말이 유행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실제 공연활동은 무대감독 김우진을 중심으로 ‘연기자’, ‘배우’에 해당하는 ‘연사들’이 수행하였다. 이들은 사실상 1920년 3월에 동경에서 유학생들이 조직한 신극운동단체인 ‘극예술협회’의 멤버들이었다. 극예술협회는 ‘동경학우회극단東京學友會劇團’¹⁸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동경유학생학우회 회원들이 다수를 이루고 있었다.

전남 목포 출신 김우진金祐鎭, 1897년생은 극예술협회동우회연극단의 실질적인 리더였다. 와세다대학 영문과 학생으로서 영미희곡 및 서양연극사, 문예비평과 창작에 상당한 식견을 가지고 있던 그는 이미 본과 3년생이던 당시에 「애란인으로서의 버나드 쇼우」, 「스펙테이터spectator의 역사」,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 등과 같은 평론을 발표했다.¹⁹ 김우진은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준비와 실제공연을 책임지고 있었으므로 연출가의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연극과 희곡에 관한 이론적 지식을 어느 정도 갖고 있었지만 연극공연에 관한 실무적 경험은 부족했고 내성적이고 소심한 성격 때문에 실제 연출은 와세다대 독문과 학생이자 友人인 토모다 쿄스케友田恭助, 1899년생가 도와주었다고 한다.²⁰

1917년 와세다대학에 입학한 토모다 쿄스케는 이미 와세다대에 입학하기 전부터 연극에 열의가 있어서 10대 시절부터 히지카타 요시土方與志와 교류하면서 어린 나이에 상당한 연극 경험을 갖고 있었다.²¹ 대학 재학 중인 1920

18 洪海星, 「草創期 學生劇運動略史」, 『自由文學』, 1958.5.(徐淵昊, 李相雨 編, 『洪海星演劇論全集』, 慶山: 嶺南大出版部, 1998, 316면)

19 徐淵昊, 洪彰秀 編, 『金祐鎭全集』(2), 演劇과人間, 2000 참조

20 馬海松, 「나의 연극청년시대」, 『前進과 人生』(馬海松全集9), 文學과知性社, 2015, 57~58면.

21 戶板康二, 『新劇史の人人』, 東京: 角川書店, 1953, 149~152면.

년 12월 토모다는 극단 사도회(師徒會)를 창단하여 와세다대, 후타바여학교 학생들을 끌어모아 창단공연을 가졌고, 1921년 4월 극단 이름을 와카모노지(若者座)로 개칭하여 <디오게네스의 유희>, <숲의 처녀> 등을 공연할 정도로 학업보다 연극에 열중하였다.²² 김우진과 토모다 쿄스케가 어떻게 친분을 맺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토모다가 와세다대 영문과에 절친한 친구들이 많았다는 점이 두 사람의 교류 원인이 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그는 나중에 김우진의 소개로 흥해성을 알게 되어 그가 쓰키지소극장에 입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연사 중에 경북 대구 출신 흥해성(1894년생)은 본래 주오대학(中央大學) 법과생이었으나 연극을 일생의 업으로 삼기로 결심하고 니혼대학(日本大學) 예술과로 편입하였다. 특히 김우진과 함께 조선신극운동을 이끌 두 날개가 되기로 맹서한 절친이었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쓰키지소극장에 입단해서 배우(1924~1929)가 되었다.

충북 진천 출신 조명희(1894년생)는 도요대학(東洋大學) 학생으로서 극예술협회에 참가하여 희곡을 써서 공연대본으로 제공했다. 그가 쓴 희곡 <김영일(金英一)의 사(死)>(1921)는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작품이 되었다. 그는 후에 프롤레타리아 소설가로 활동하다가 소련으로 망명하였으나 간첩 혐의를 받고 1938년에 처형되었다.

경기도 화성 출신 흥난파(1898년생)는 동경음악학교를 중퇴하고 매일신보사 기자로 재직하기도 했다. 1921년에 자신이 근무했던 『매일신보』에 소설 「최후의 악수」²³를 발표하였는데, 흥난파는 이 소설을 각색하여 동우회 연극단

22 위의 책, 158~159면.

23 小説「最後の握手」는 『毎日申報』에 1921년 4월 29일부터 6월 7일까지連載되었고, 1922년에單行本『最後の握手』(京城:博文書館)로刊行되었다.

의 공연대본으로 사용하였다. 동우회 연극단 공연에는 연극뿐만 아니라 음악 공연도 있었는데, 여기에서 흥난파는 바이올린 독주를 하였다.

경기도 개성 출신 마해송¹⁹⁰⁵년생은 연극단의 최연소 학생이었고, 여배우가 없었던 연극공연에서 여역女役을 맡아 연기했다. 그는 후일에 기쿠치 킨菊池寬과 함께 일본 '분게이슌주사文藝春秋社'에서 편집부원으로 근무했고, 조선에서는 아동문학가, 수필가로 명성을 날렸다.

경북 김천 출신인 허일¹⁸⁹⁷년생은 동우회 연극단에 가담한 이후에는 주로 조선공산당에서 사회주의 활동을 전개하였다. 검거와 투옥을 거친 이후 1928년에는 조선공산당春景園共產黨 중앙위원이 되었다.²⁴ 1921년 동우회 연극단의 평양 공연이 임석경관에 의해 공연 중지 당하는데 원인을 제공했다. 그밖에 단원으로 김기원, 공원호, 오의상 등이 있었다.

음악부는 흥난파, 윤심덕 등으로 구성되었다. 흥난파는 주로 바이올린 독주를 했고, 윤심덕은 독창을 했다. 평양 출신 윤심덕¹⁸⁹⁷년생은 동경음악학교에서 성악을 공부했고, 음악부의 일원으로 동우회 연극단에 참가하게 되었다. 그는 1923년에 귀국하여 조선 최초의 소프라노로서 무대에 데뷔하였고, 1926년에는 극단 토월회土月會에 입단, 연극 〈동도東道〉, 〈카르멘〉에 출연함으로써 조선 최초의 신여성 출신 신극 여배우가 되었다.²⁵ 동우회 연극단에서의 인연으로 유부남인 김우진과 서로 알게 되었고, 두 사람은 1926년 8월 현해탄에서 정사情死하였다.²⁶

24 姜萬吉, 成大慶 編, 『韓國社會主義運動人名辭典』, 創作과批評社, 1996, 540면.

25 「舊正初興行」, 『東亞日報』, 1926.2.13.

26 「玄海灘激浪中에 青年男女의 情死」, 『東亞日報』, 1926.8.5.

3.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활동과 작품

본래 동우회 연극단의 흥행장소 및 일정은 1921년 7월 8일 부산을 시작으로 김해, 마산, 진주, 통영, 밀양, 경주, 대구, 목포, 광주, 전주, 군산, 강경, 공주, 청주, 경성京城, 개성, 해주, 평양, 선천, 정주, 철원, 원산, 영흥을 거쳐 8월 18일 함흥에서 공연을 마치는 것이었다. 약40일간에 조선 반도의 남선南鮮 지역을 거쳐 서선西鮮:평안도, 북선北鮮:함경도 지역까지 모두 25개 도시를 순회하는 바쁜 일정이었다.²⁷ 그러나 순회활동 도중에 장마와 수해를 만나 공연이 취소 되는 바람에 실제로는 12개 지역에서만 순회공연이 이루어졌다. 동우회의 순회공연 성과는 다음과 같다.

- 7월 9일 : 부산, 부산좌, 오후7시30분
- 7월 11일 : 통영, 협성학원協成學園
- 7월 13일 : 마산, 수좌壽座, 오후9시
- 7월 14일 : 진주, 가설극장, 오후8시
- 7월 18일 : 경주, 가설극장, 오후8시
- 7월 20일 : 대구, 대구좌, 오후9시
- 7월 22일 : 목포, 상반좌常盤座
- 7월 23일 : 광주, 광주좌
- 7월 28~31일 : 경성京城, 단성사, 오후8시
- 8월 4일 : 평양, 가부키좌, 오후8시30분공연중지
- 8월 8일 : 진남포, 항좌港座, 오후8시

27 「東京同友會 第1回 巡迴演劇團」, 『東亞日報』, 1921.6.28.

8월 11일 : 원산, 동락좌(同樂座), 오후8시30분

8월 18일 : 경성, 종로청년회관 해산식, 오후1시

남선지역에서는 주로 경상도부산,통영,마산,진주,경주,대구등6개도시에서 공연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밖에 전라도의 2개 도시목포,광주, 그리고 경성에서 4일간의 장기 공연이 이루어졌다. 서선지역에서는 평안도에서 평양, 진남포의 공연이 있었고, 북선지역에서는 원산 1개 도시에서만 공연을 할 수 있었다. 그나마 평양 공연은 경찰의 공연중지 명령에 의해 공연 도중에 중단되었다.

동우회 연극단의 순회공연은 대체로 1920년에 창간한 민족주의 신문 『동아일보』를 비롯해 조선노동공제회, 천도교청년회, 조선교육회 등의 적극적인 후원을 받았다.²⁸ 동아일보는 1919년 3·1운동 이후 조선총독부의 정책이 무단통치에서 문화통치로 바뀌면서 창간된 조선 민간인 소유의 신문사(주)를 수였고, 이러한 이유에서 창간 당시부터 ‘문화주의(文化主義)’를 표방하였다. 따라서 문화운동을 통한 민족계몽을 기치로 내건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활동에 대해 『동아일보』가 적극 호응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었다. 『동아일보』는 동우회 연극단의 순회공연을 신문지면을 통해 독자들에게 열심히 홍보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순회연극단이 고학생과 노동자를 구제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으므로 후원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교육회는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추진한 단체였으므로 정리위원, 사교위원으로 참여한 한인봉, 최석기와 관련성이 있다. 이러한 인적 관련성으로 인해 동우회 연극단을 후원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적극적인 홍보와 후원으로 인해 동우회 연극단의 흥행은 매우 성

28 『東亞日報』, 1921.7.28.

공적이었다. 가령, 진주와 같은 작은 도시에 불과 하루 공연에 1,200명의 관중이 순회연극의 공연장을 찾았다.²⁹ 대구와 평양의 공연에도 1,000여명의 관중이 극장을 찾았다. 그리고 매회 공연 때마다 관중들로부터 ‘동정금(同情金)’, ‘의연금(義捐金)’이라는 명목으로 100~200여원의 기부금을 모금했다. 동우회 연극단은 가는 곳마다 관중들로부터 열띤 환영과 갈채를 받았다.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활동은 대개 지역 유지의 소개사, 단장 임세희의 개연(開演)의 말, 흥난파의 바이올린 연주와 윤심덕의 독창, 그리고 연극 공연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연극 공연은 정극(正劇) 〈최후의 악수〉³⁰ 흥난파작, 비극(悲劇) 〈김영일의 사〉³¹조명희작, 희극(喜劇) 〈찬란한 문〉³²탄세니작, 김우진역을 상연하였다. 정극 1편, 희극 1편, 비극 1편의 공연체제는 이 시기 조선의 신파극단이나 대중극단의 공연 관습과 유사한 것이었다. 공연을 하기 전에 단장이 먼저 개연에 관련된 말을 하는 것도 1910년대 조선 신파극의 공연관습과 연관된다. 즉, 동우회 연극단의 실질 세력인 ‘극예술협회’는 1920년에 신파극을 반대하고 ‘신극(新劇)’의 가치를 내걸고 등장했지만 1910년대 신파극의 관행을 일부분 답습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동우회 극단만의 문제는 아니고, 이 시기의 다른 고학생 순회연극단도 유사했다. 동년 하기방학에 고국순회공연을 했던 ‘고학생갈등회’의 공연작품도 비극 〈운명〉, 정극 〈빈곤자의 무리〉, 희극 〈유언〉의 구성을 갖고 있었다.³⁰

그러나 공연작품의 내용은 명실상부한 신극이라 할 수 있다. 흥난파가 쓴 같은 제목의 소설을 각색한 〈최후의 악수〉는 현재 대부분은 남아있지 않지만, 『매일신보』에 연재된 소설을 통해 그 내용을 알 수 있다. 이 작품은 소학교 동

29 『東亞日報』, 1921.7.14. 당시 晉州의 人口는 1927년(昭和2年) 基準으로 朝鮮人 3,351戶, 15,110名(日本人은 564戶, 1,966名)이었다. (『朝鮮鐵道沿線要覽』, 京城: 朝鮮拓植資料調查會, 1928, 944면)

30 「大鳴采의 갈등劇, 8日 平壤에서」, 『東亞日報』, 1921.8.13.

창인 김홍수, 그의 연인 화봉, 그리고 홍수의 친구인 박진섭, 세 인물을 둘러싸고 사건이 전개된다. 화봉은 귀족 자식에게 딸을 시집보내려고 하는 부모의 고집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사랑의 동반자로서 김홍수를 신뢰하고 사랑한다. 그리하여 원하지 않는 결혼을 피하기 위해 홍수와 함께 산 속의 절로 피신한다. 그럼에도 홍수는 화봉의 마음을 의심하고 그의 진심을 떠보기 위해 거짓 동반자살극을 꾸민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홍수의 사랑이 진실한 것이 아니었음을 깨닫고 화봉은 과감하게 그를 떠난다는 이 작품의 결말은 입센의 〈인형의 집〉과 매우 유사하다. 여성으로서 주체를 자각한 화봉은 ‘노라’에 해당되는 신여성의 이미지를 갖고 있다. 동우회 연극단도 스스로 〈최후의 악수〉가 ‘신여성 최초의 각성’을 보여주는 작품이라는 점을 내세웠다.³¹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는 조선에서 입센의 희곡과 그의 여성해방사상에 대한 열풍이 불기 시작했다. 양백화梁白華, 박계강朴桂岡이 〈인형의 집〉을 조선 최초로 번역하여 동년¹⁹²¹ 1월 25일부터 4월 3일까지 『매일신보』에 연재하였다. 이는 조선에서 〈인형의 집〉에 대한 관심, 즉 ‘입센熱’을 불러일으키는 시발점이 되었다. 흥난파의 〈최후의 악수〉도 그러한 당시 ‘입센熱’ 현상을 반영하는 작품이다. 뿐만 아니라 이 작품에서 부모의 강압에 의한 전근대적 결혼제도의 모순을 비판하고 자유연애, 자유결혼을 주장하는 화봉의 태도는 동경 유학생들에 의해 창작된 초창기 근대희곡인 이광수의 〈규한〉¹⁹¹⁷, 오천석의 〈조춘의 비애〉¹⁹¹⁸, 최승만의 〈황혼〉¹⁹¹⁹, 유지영의 〈이상적 결혼〉¹⁹¹⁹ 등의 주제의식을 계승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 작품들은 다이쇼시대에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한 엘렌 케이의 『연애와 결혼』에 나타난 연애지상주의, 쿠리야가와 하쿠손 劇川白村의 『근대의 연애觀近代の戀愛觀』¹⁹²²에 나타난 영육합일靈肉合一의 연애

31 「同友劇團 上場劇 3種의 梗概」, 『東亞日報』, 1921.7.27.

론에 큰 영향을 받았다.³² 홍난파의 <최후의 악수>가 그러한 자장에 놓여있음은 말할 것도 없다.

아일랜드 작가 던세니의 작품 <찬란한 문>은 김우진의 번역으로 상연되었다. 짧은 단막극이고, 조선 관중의 정서에 맞지 않는 서양 번역극이어서 그다지 좋은 반응을 얻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도둑 형제가 우연히 천국의 문을 알게 되고 그 문 너머의 세계를 동경한다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작품으로 던세니의 신학적 세계관을 반영한 것이다. 작품 내용보다도 아일랜드에 대한 관심 그 자체가 레퍼토리 채택의 원인이 되었을 것이다. 아일랜드의 처지가 식민지조선과 유사한 것에 대한 민족적 동질감, 그리고 1920년 무렵 아일랜드 자치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것에 대해 당시 상당한 조선인들이 큰 관심을 보였던 것³³이 <찬란한 문>의 공연 배경이 되었을 것이다. 더욱이, 김우진의 友人인 토모다 쿄스케(友田恭助)가 극단 와카모노지(わかもの座, 師走會)에서 개칭을 만들어 1921년 6월에 히지가타 요시(土方與志) 연출로 로드 던세니의 작품 3편, <천국의 문(天國の扉)>, <아라비아의 천막(アラビア人の天幕)>, <여인숙의 밤(旅宿の一夜)>을 공연했는데³⁴, <천국의 문(天國の扉)>은 바로 <찬란한 문>과 동일 작품이기에 동우회 순회연극의 상연작품으로 선정된 데에 토모다 쿄스케의 영향력이 미친 것이 아닌지, 그리고 이 희곡을 김우진이 직접 번역한 데에도 토모다와의 친분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 주목할 만하다.

동우회 극단의 공연작품 중에 관중들에게 가장 갈채를 받은 것은 조명희 작 <김영일의 사>였다. 이 작품은 동경의 고학생 김영일의 비극을 다룬 것이

32 이상우, 「1910년대 동경유학생학우회와 근대극」, 『한민족어문학』 제86집, 2019.12, 331~332면.

33 「朝鮮自治問題」, 『東亞日報』, 1920.4.2~7; 「愛蘭問題의 由來」, 『東亞日報』, 1920.4.9~21; 「愛蘭問題」, 『朝鮮日報』, 1921.3.8~12

34 大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明治大正篇』, 東京:白水社, 1985, 280~281面.

다. 고학생 김영일은 신문배달을 하다가 빙판에 넘어져 고통을 받고 있다. 더군다나 고향에서는 모친이 위독하다는 전보가 도착한다. 그는 급하게 귀국 여비를 빌리기 위해 부유한 유학생 전석원을 찾아가 호소하지만 모욕을 당한다. 사회주의자인 친구 박대연이 격분해서 전석원과 싸움이 벌어지는데 때마침 출동한 경찰에 의해 박대연이 갖고 있던 불온문서가 발각되어 모두 경찰에 체포된다. 병든 몸으로 차가운 감옥에서 고초를 겪은 김영일은 결국 친구들의 품속에서 죽어간다. 동우회 순회연극의 목적이 고학생들을 구제하는 것에 있었기 때문에 동경 고학생의 참상을 다소 강조해서 보여준 작품을 상연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작품이 조선에서 상연되었을 때 관중들은 차가운 이국^{異國}에서 비참하게 죽은 김영일을 망국민 조선민족의 운명을 상징한다고 해석하였을 것이다. 그래서 이 극은 다른 작품에 비해 유난히 관중들의 열광적 환영과 갈채를 받았다. 평양 공연에서는 사회주의자 단원 허일^{許一}이 3막 공연 중에 대본에 없는 “10년전에는 자유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자유가 없다.”라는 대사를 외쳤다가 극장에 있던 임석경관으로부터 중지명령을 받고 공연이 중단되었다. 허일은 변호사와 동아일보 기사를 대동하여 평양 경찰서에 출두하였고, 경찰은 그에게 변명서를 제출받고 풀어주었다.³⁵

연극작품을 통해 식민지조선의 관중들이 여성의 주체적 자각, 빈궁에 처한 민족의 운명을 깨닫게 하기 위해 동우회 연극단은 의도적으로 민족을 계몽하기 위한 연극을 추구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거기에는 자연스럽게 식민지 당국과 경찰의 검열과 탄압이라는 손길이 미치게 되었던 것이다.

35 「平壤의 同友演劇」, 『東亞日報』, 1921.8.7.

4. 동우회 연극단의 사상적 배경과 '교양'의 의미-결론을 대신하여

동우회 연극단은 표면적으로는 동경고학생동우회가 조직한 연극단이지만 실제로는 1920년에 설립된 극예술협회가 주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홍해성의 증언에 따르면 극예술협회는 실질적으로 '동경학우회극단(東京學友會劇團)'으로 인식되고 있다.³⁶ 즉, 극예술협회 회원이 대체로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 회원과 꽤 겹치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바꿔 말하면 동우회 연극단의 사상적 배경이 동경유학생학우회에 있다고 볼 수 있는 근거가 된다. 동경유학생학우회 멤버들의 사상적 경향은 그 기관지 『학지광(學之光)』¹⁹¹⁴⁻¹⁹³⁰에 잘 나타나고 있다.

『학지광』에 실린 동경 유학생들의 글을 살펴보면, 1910년대 중반에는 사회진화론 사상에 큰 영향을 받고 있다. 그래서 민족독립을 위해 힘을 길러야 한다는 우승열패적 사회관이 지배적이었다. 그러나 점차 다이쇼데모크라시 시대의 민본주의사상의 영향을 받으면서 문화주의적 개조론을 수용하는 분위기로 논조가 수정되기 시작하였다. 국가, 민족보다 개인과 개인의 인격가치의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하였다. 그러면서 개인의 인격가치를 향상시키기 위해 '교양(敎養)'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교양주의 사상이 확산되었다. 社會改造, 民族改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人格의 改造가 선행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문학, 철학, 연극, 예술 등 문화를 통해 개인을 개조하는 문화운동이 필요하다는 논리가 주장되었다.³⁷

이러한 과정에서 조선 유학생들은 누구보다도 동경제대 교수 요시노 사

36 洪海星, 「草創期 學生劇運動略史」, 『自由文學』, 1958.5.(徐淵昊, 李相雨 編, 『洪海星演劇論全集』, 慶山: 嶺南大出版部, 1998. 316면)

37 정미량, 『1920年代 在日朝鮮留學生의 文化運動』, 知識産業社, 2012, 96~149면 참조.

쿠조吉野作造의 民本主義論에 큰 영향을 받았고, 요시노 등이 만든 ‘여명회黎明會’ 1918를 비롯해 동경대의 신인회新人會, 와세다대의 민인동맹회民人同盟會 등과 같은 민본주의운동 단체가 개설하는 강연회와 집회에 조선 유학생들은 열성적으로 참가하였다. 동우회 연극단의 공연활동에서 실질적 리더 역할을 했던 김우진의 일기 『마음의 자취心の跡』 1919~1925을 살펴보면 와세다대 영문과 재학 중에 그가 민인동맹회民人同盟會의 강연회에 열심히 참여하였고, 당시 민본주의 사상의 세례를 크게 받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³⁸ 그의 희곡과 문학평론에 나타난 니체, 쇼펜하우어, 버나드 쇼 등의 영향과 초인사상, 생철학의 흔적은 그러한 면모를 반영한다.

동경조선유학생학우회가 1920년 7월 하기방학을 이용해서 고국순회강연 활동을 시작하게 된 배경, 그리고 나아가 이듬해 하기방학에 학우회와 동우회가 고국순회연극 활동을 전개한 배경에는 모두 식민지 조선반도를 돌며 ‘강연’과 ‘연극’이라는 퍼포먼스를 통해 민족계몽을 위한 문화운동을 실천하려는 동경유학생들의 열망이 반영되어 있었을 것이다.

김우진은 순회연극단에 참가하기 직전인 1921년 6월 『학지광』에 평론 「소위 근대극에 대하여」을 발표하여 근대극운동의 사명은 ‘사회계몽’과 ‘인류 영혼의 해방과 구제’에 있다고 역설하였다.³⁹ 즉, 연극이라는 예술을 통해 민족을 계몽하고, 개인의 인격가치를 함양하는 두 가지 목표를 모두 이룰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연극의 사회계몽적 효용을 강조하면서도 ‘교양’으로서의 가치를 포기하지 않은 것이다. 동우회 연극단에서 ‘다이쇼의 지식청년’ 김우진을 주목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1920년대 동우회 순회연극단의

38 徐淵昊, 洪彰秀 編, 『金祐鎮全集』(2), 演劇人間, 2000, 433~513면 참조.

39 金焦星(金祐鎮), 「所謂 近代劇에 對하여」, 『學之光』 22號, 1921, 67~71면.

공연활동에 나타난 교양의 의미를 이해하는 핵심적 열쇠는 동우회 연극단과 김우진의 관계, 그리고 김우진의 문학, 연극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 등을 통해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러한 점은 추후의 연구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및 논문

- 『朝鮮鐵道沿線要覽』, 京城: 朝鮮拓植資料調查會, 1928.
- 姜萬吉, 成大慶 編, 『韓國社會主義運動人名辭典』, 創作과批評社, 1996.
- 徐淵昊, 洪彰秀 編, 『金祐鎮全集』(2), 演劇과人間, 2000.
- 정미량, 『1920年代 在日朝鮮留學生의 文化運動』, 知識産業社, 2012.
- 戶板康二, 『新劇史の人人』, 東京: 角川書店, 1953.
- 高峻石 監修, 文國柱 編著, 『朝鮮社會運動史事典』, 東京: 社會評論社, 1981.
- 大笹吉雄, 『日本現代演劇史—明治大正篇』, 東京: 白水社, 1985.
- 黃錫禹, 「東京留學生과 그 活躍」, 『三千里』, 1933.2.
- 洪海星, 「草創期 學生劇運動略史」, 『自由文學』, 1958.5.
- 林鍾國, 「日帝末 親日群像의 實態」, 『解放前後史의 認識』(1), 한길사, 2006.
- 馬海松, 「나의 연극청년시대」, 『前進과 人生』(馬海松全集9), 文學과知性社, 2015.
- 원지연, 「近代日本의 植民地統合과 同化政策의 破綻—朴春琴의 事例를 中心으로」, 『大韓日語日文學會 秋季國際學術發表會 論文集』, 2015.11.
- 이상우, 「1910년대 동경유학생학우회와 근대극」, 『한민족어문학』 86, 한민족어문학회, 2019.
- 小熊英二, 「朝鮮生まれの日本人—唯一の朝鮮人衆議院議員・朴春琴」, 『〈日本人〉の境界』, 東京: 新曜社, 1998.

Abstract

The Dongwoohoe's Tour Theatre Company and Kim Woo-jin

The Performance Activities of the Korean Self-supporting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and Kim Woo-jin

Lee Sang-woo*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human composition and activities of the Dongwoohoe's tour theatre company from July to August 1921, and to examine the social and cultural background of the Dongwoohoe(the Korean Self-supporting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s performance. In order to accurately clarify this point, we have to pay attention to the relationship between Dongwoohoe's tour theatre company and Kim Woo-jin, a key figure who played a pivotal role in leading the performance. Accordingly, this paper examines the relationship between Keukyesulhyeophoe(the Dramatic Arts Association) and the Dongwooho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and the Korean Self-supporting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and furthermore, the culturalistic renovation theory and the cultural humanism of the Daisho Democracy era and Kim Woo-jin. Through this, it is intended to understand the cross-section of the national movement's characteristics of the tour theatre company made by Korean students of Tokyo in the early 1920s.

Keywords Dongwoohoe's Tour Theatre Company, the Korean Self-supporting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Keukyesulhyeophoe, Kim Woo-jin, the Korean Students Association of Studying Abroad in Tokyo, Daisho Democracy

이 논문은 2023년 5월 1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3년 5월 20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3년 6월 1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 Korea University.